**조인어스코리아 , 글로벌 ‘지식인’ 플랫폼 통해 민간외교 확대 추진**

국내 최초의 다국어 & 다문화 지식교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IT NGO 단체 조인어스코리아에서 오는 7월 7일부터 ‘글로벌 다국어 지식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서울시,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이 후원하는 이번 ’글로벌 다국어 지식교류 프로젝트’는 각 나라의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 하는 개인별 외국인의 질문에 해당 외국어로 답변하는 온라인 언어별 재능활동가를 모집, 국가간 민간외교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다. 외국인의 질문은 관광을 비롯해 의료, 생활, 문화, 교육 등 생활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1:1 지식 답변을 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위 ‘국경없는 언어문화 지식교류 활동가’들에게는 활동에 따라 안전행정부 1365 나눔포털을 통해 봉사시간이 인정되며, 우수한 활동을 펼친 봉사자에게는 표창이 주어진다.

모집 대상 언어는 영중일을 비롯해 소외권 언어를 포함한 29개 언어로, 언어별 지식교류 활동가 자격은 국내외 한국어를 포함해 외국어가 가능한 내외국인이며, 이들 언어재능활동가들과 함께 답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노무, 법무,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은 언어 능력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글로벌 다국어 지식교류 프로젝트’는 조인어스코리아가 운영하는 조인어스월드에 가입해 진행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인어스코리아 단체 사이트 <http://www.joinuskorea.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